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9 호

교계 환경운동 실천 위주로

"벌이 꿀 채집하듯 자연 대하자"

조계종 '푸른산 지킴이 운동' 추진
재생용품 쓰기 · 청소하기 '솔선'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법구경〉의 가르침이다.

교계의 환경운동이 실천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환경운동에도 꿀벌의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1년 발족된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을 중심으로 환경의식을 다져온 교계 환경시민단체들은 사찰주변 환경정화, 유기농산물 및 환경물품 사용 · 제작, 생태기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작지만 실제적인 환경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교계의 환경보호운동은 사찰주변의 등산로나 계곡을 청소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 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 녹색환경감시단과 전국 15개 불교산악회 등이 사찰주변을 주 · 월간별로 청소하면서 '사찰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계종도 5월22일 사찰환경보존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범종교차원의 (가칭)'푸른산지킴이운동'을 기획, 6월5일 세계환경총회에서 '서울의제 21'로 공식발표하기로 하는등 종단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물품을 제작 · 사용하거나 유기농산물을 공동구입하는 알뜰환경운동도 활발하다. 경불련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은 폐식용유를 수거해 비누를 제작, 염가나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석왕사생활협동조합(이사장 영담)은 비누 · 노트 · 화장지 등 각종 재생용품과 유기농산물을 공동구입해 판매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맑고향기롭게모임 회원들과 동대부고 학생 50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셋째주 일요일 서울 관악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땅속에 묻힌 비닐 · 캔 · 페트병 등을 캐내고 있다. 매번 캐내는 쓰레기는 20 / 짜리 대형봉지 300여개 분량.

청소년 환경공모전

7일 청정국토운동본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환경의날을 기념, 7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환경강연회(강사 · 권숙표 연세대 명예교수)를 개최한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연사랑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당일 조계사에 전시되고 단행본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온누리가 깨끗해져요〉란 제목으로 출간된다.

한편 청정국토본부는 내달 초에 기관지 〈공해없는 세상〉의 원고를 모아 단행본 〈불교와 환경〉을 출판할 예정.

대북지원 지정기탁 '불심 환영'

불교추진위, 조불련 연대 추진…불자 성금 잇따라

남북적십자 대표들이 5월26일 대북 식량지원 규모와 지정기탁제 등을 골자로한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불교계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정기탁제' 실시는 남한의 기탁자가 북한의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지정해 지원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남북불교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유지원씨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연대, 북쪽의 불자들에게 식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의 식량지원에 소외됐던 함경도 지역 등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녘동포돕기 성금에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해인사 등 7개 강원에서 전개한 1차분 성금 1천8백여만원을 5월27일 불교추진위에 기탁했다.

또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오희창 사무총장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기간에 실시한 탁발행사 수익금 2백여만원을 5월26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운문사 비구니 승가대학원 인가

조계종 교육회의

비구니 전문강사 양성교육기관인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이 설립된다. 또 학년정원 7인이상, 총학인정원 30인이상 80인이하의 승가령도 확정 발표됐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교육원은 5월27일 제27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비구니 전통강원인 운문사 승가대학에 승가대학원 설립을 인가했다. 운문승가대학원은 수의과정(2년)과 전문과정(3년)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또 기본교육 이수자격을 현 15세이상 50세이하에서 18세이상 40세이하로 조정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가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연봉(連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희방폭포로 유명한 희방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 · 희방사

■ 참가 안내

◇출 발: 6월 29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안 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두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복지재단 간병봉사단 서울시 우수단체 선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이 제3회 서울시 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자원봉사단체로 선정돼 5월 24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92년 창립돼 보훈병원 국립재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주1회 실시했으며 현재는 종합병원 불교병원등 14곳에서 150여명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엄사탑 발견 불상주조틀 공개

95년 8월 구례 화엄사 서5층석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청동제 불상주조틀(가로 7.1㎝, 세로8.1㎝)과 다라니경이 1천2백년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보존처리를 거쳐 공개한 총 46점의 유물 가운데, 진흙 등에 찍어 불상을 조성하는 불상주조틀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손 제 석

직하게 우리 대학이 들어선 현 위치 25만평의 부지 입지승인이 전직 장관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인용하여 지역언론 역시 확인도 않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개혁바람이 거셌던 사회분위기여서 대학 개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걱정이 앞섰으며,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비애감이 밀려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육자진언을 염송했고 이와 함께 현실을 진리의 눈으로 파악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남의 허물은 나의 그림자"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 신문의 무명은 나의 눈 또한 밝은가를 돌이켜 보라는 법문이 아닌가. 대학 설립작업과 관련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실상과 같이 자심을 아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으로 추진하라는 〈대일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자기 참회가 일어나니 분노와 비애감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더욱 여실지자심의 진리에 입각하여 대학설립이라는 현실 과제를 다루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이의 찬탄 속에 이 땅의 두번째 불교종립 종합대학을 장엄하게 개교할 수 있었다.

여실지자심의 가르침에 따라 상대의 허물 보지 않고 내 허물을 찾을때, 그의 저 허물은 바로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받아 들여진다. 이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밀엄정토(密嚴淨土)가 될 것이다. 〈위덕대학교 총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세계유산이냐 골프장이냐 9면
판소리로 만나는 '시명대사' 13면
백양사-장성군 '마찰심화' 19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규격(폭×높이) \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 × 26.5㎝	230,000원
16㎝ × 40.5㎝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